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만화같은 힘

‘나쁜형사’ 신하균

그래픽 노블 3차원 구현
우태석 입체적으로 그려

그의 연기를 보고 있다면 팔자주름과 미간까지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랜만에 ‘나쁜 형사’가 돼 안방극장에 돌아온 배우 신하균(44·사진) 이야기다. 그는 흡사 그래픽 노블을 영화로 구현한 ‘씬 시티’를 보는 듯 만화같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MBC TV 월화극 ‘나쁜형사’를 3차원에 생생하게 구현해낸다.

◇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두뇌...매력적인 ‘나쁜 형사’

영국 BBC 인기 드라마 ‘루터’(Luther)를 원작으로 한 ‘나쁜 형사’는 ‘루터’속 존 루터가 그렇듯 우태석이 알파오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플지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섹시한 남자 이드리스 엘바의 존 루터는 거칠고 음울한 느낌이었다면, 신하균이 그리는 우태석은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이다.

그의 흐트러진 곳 없는 정장 차림에 짧게 쳐올린 머리, 날이 선 눈빛은 과장된 표정과 몸짓의 사이코패스 장형민(김건우 분)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다. 형사면서 지능적으로 탐법을 자행하는 자극적인 설정도 신하균의 디테일한 연기 덕분에 개연성과 정당성을 갖는다.

그렇다고 우태석이 차가운 매력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가 ‘괴물’에 가깝게 변한 것은 13년 전 살인사건과, 그 사건을 목격한 후 실종된 배여울(조이현) 때문이다. 여울을 찾고 범인을 단죄하려는 형사로서의 뜨거운 피가 그의 두뇌를 누구보다도 차갑게 만든 셈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 뛰는 과정이나 난간에서 장형민의 손을 놓아버릴 때 우태석의 눈빛에서도 냉철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신하균의 입체적이고 섬세한 연기 덕분이다.



초반부 ‘루터’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는 하지만 지상파 평일 미니시리즈에서 짜임새 좋은 장르극을 보는 것이 오랜만이라 내용과 연출 자체에 대한 호평도 많다.

13년 만에 맞닥뜨린 우태석과 장형민의 대결, 우태석과 전준만(박호산)의 악연, 우태석과 은선재(이설)의 대립과 관계변화가 총총하게 얽힌 덕분이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먼저 자백해버린 우태석 모습과 배여울이 은선재가 아닐까 짐작하게 하는 복선 등이 긴장감을 높였다.

연출 역시 도입부부터 애니메이션이나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를 보는 듯 수준급이고,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나 음향도 극 색갈과 잘 맞아떨어진다.

◇ 다른 배우들마저도 끌어당기는 신하균의 힘

이미 시즌4까지 진행한 원작을 가져오다 보니 ‘나쁜형사’는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를 빠른 템포로 그려낸다. 우태석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 이야기 역시 가쁜 호흡으로 그려지는 편이다.

이렇게 되면 전개가 산만할 법도 한데,

신하균이 무게중심을 꽂 잡는 덕분에 극은 빠른 흐름 가운데에서도 단계를 생략하지 않고 서사와 복선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특히 신하균은 신인배우들과의 호흡에서 그들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태석과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추는 천재 사이코패스 은선재부터 신인인 이설이 연기한다. 300대 1 경쟁률을 뚫고 이 역을 차지한 이설은 독특한 마스크와 개성 있는 연기로 극에 점점 녹아들지만 때로는 ‘튀는’ 장면도 노출한다. 그러나 신하균과 호흡하는 순간에는 개성은 유지하면서도 안정된 연기를 보여준다.

‘나쁜형사’는 기획부터 신하균을 주인공으로 염두에 둔 작품으로 알려졌다. 신하균 역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극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나쁜형사’ 관계자는 9일 “원작이 있는 작품이지만 신하균이 원작과 또 다른 우태석 캐릭터를 위해 긴 시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모두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재석 7년 연속 최고 예능인 박나래 여성 팬 등에 업고 2위

한국 갤럽 조사 ... 3위는 강호동

개그맨 유재석이 2018년을 빛낸 올해의 예능방송인·코미디언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활약한 예능방송인·코미디언을 두 명까지 설문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갤럽은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의 입지가 줄어들고 일반인이나 전문 직업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코미디언·개그맨’ 분야를 ‘예능방송인·코미디언’으로 확장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재석은 응답자 33.4%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유재석은 한국갤럽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코미디언·개그맨 분야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0년과 2011년 잠시 2위에 머물렀다가 2012년부터 다시 7년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는 박나래(27.4%)가 차지했다.

박나래는 MBC TV ‘나 혼자 산다’,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tvN ‘짠내투어’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tvN ‘코미디빅리그’ 등 정통 코미디 연기를 계속한다.

갤럽은 “박나래는 예능 프로그램 주요 수요층인 20~30대 선호도가 높고 특히 10~40대 여성들 선호도 조사에서는 첫 손에 꼽혀 그의 상승 가도가 앞으로 더 거침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위는 강호동(23.3%)이었다. 그는 유재석과 함께 양대 국민 MC로 군림하다 2011년 잠정 은퇴했다. 복귀한 그는 현재



유재석

박나래

JTBC ‘아는 형님’과 ‘한기줍쇼’, tvN ‘신서유기’ 등 비지상파 채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

4위에는 제2의 전성기를 연 이영자(15.6%)가 올랐다. 그녀는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 올리브 ‘밥블레스유’ 등을 통해 맛깔스러운 ‘떡방’ (먹는 방송)과 특유의 입담으로 화제 중심에 섰다.

갤럽은 “이영자 프로그램에는 오랜 친구 관계인 여성 예능인들이 동반 출연하거나 자주 소개돼 ‘영자의 전성시대’는 ‘언니들의 전성시대’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0위권에 신동엽, 전현무, 양세형, 이수근, 이경규, 이상민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허지웅 “악성림프종 항암치료...이겨내겠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사진)이 악성림프종으로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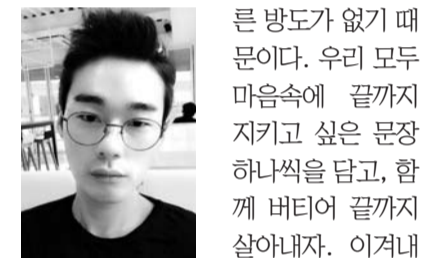
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혈액암의 종류라고 한다”며 “붓기와 무기력증이 생긴 지 좀 됐는데 미처 큰 병의 징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까지 이르는 몇 주 동안 생각이 많았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미리

약속된 일정들을 모두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제 마지막 촬영까지 마쳤다. 마음이 편하다”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현재 tvN 예능 ‘아모르 파티’에 출연 중이다.

허지웅은 이어 “지난주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며 “버티는 삶에 관하여(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함께 버티어 나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삶이란 버티어 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



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싶은 문장 하나씩을 담고, 함께 버티어 끝까지 살아내겠다”고 밝혔다.

영화평론가와 작가로 주로 활동하는 허지웅은 JTBC ‘철전’과 ‘마녀사냥’,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시청자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혈성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55 MBC스포츠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2018 ITTF 월드 투어 그랜드 파이널 국제 탁구대회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뒤편뎡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도봉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0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렀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오늘의 설록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통일 미리보기 <웃음내 교사 이야기>	12:00 EBS 정오뉴스	19:00 레이디버그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특별기획 <인생이 학교다>	19:30 EBS 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00 웅감한 소방차 레이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꼬마버스 타요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가이드북에 없는 베트남 4부 가족의 바다>
08:00 동당명 유치원1~2	14:45 로보가 폴리	21:30 한국기행
08:30 미니특급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국밥기행 4부 굿! 제철이구먼>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00 두다다쿵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30 원더볼즈	16: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사이좋은 고부, 떠나야하는 시어머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30 랄랄라 뿌우(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45 동당명 유치원1~2(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포두부 라자나>	17:15 두다다쿵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17:30 뽀롱뽀롱 뽀로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음 11월 7일 己卯)

<p>子 36년생 보고도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48년생 혼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60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72년생 암시하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84년생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55, 78</p>	<p>午 42년생 제대로 보여 줘버려라. 54년생 냉철하게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부딪치면 서로가 손해이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90년생 자기 주관에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10, 86</p>
<p>丑 37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49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리겠다. 61년생 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75년생 작은 것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85년생 행운의 그림자가 비친다. 행운의 숫자 : 74, 84</p>	<p>未 43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리라. 55년생 어찌구무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가 두렵다. 67년생 수효가 아니라 실속임을 알자. 7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 되어야 국면 타개할 수 있다. 91년생 기존의 정황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22</p>
<p>寅 38년생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50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말라. 62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이다. 74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책할 것이다. 86년생 조건이 양호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2</p>	<p>申 44년생 일단락 지어놓고 보자. 56년생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68년생 성과에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한다. 80년생 과정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하자. 92년생 인과관계를 따지려 하지 말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절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9, 58</p>
<p>卯 39년생 감당하지 못 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51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리라. 63년생 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75년생 작은 것은 내버려둬도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87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행운의 숫자 : 21, 49</p>	<p>酉 45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룬다. 57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69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81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93년생 인간관계로 인한 시달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47</p>
<p>辰 40년생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일들이 재개 되리라. 52년생 실상의 앞과 뒤를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실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76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8년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 하자. 행운의 숫자 : 27, 20</p>	<p>戌 34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46년생 참신해야 된다. 58년생 기저부터 문제점이 보인다. 70년생 애초의 상황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82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행운의 숫자 : 91, 44</p>
<p>巳 41년생 국면을 전환시켜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53년생 학습고대 하여 왔던 바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다. 65년생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77년생 생 지나 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89년생 맹목적이러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67, 00</p>	<p>亥 35년생 기회가 왔을 때 취하자. 47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다. 59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71년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백 번 낫다. 83년생 적적이 아니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2, 5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